

10 월의 사양관리

축산과학원

일반 사양관리

지난 8월과 9월에 너무 많은 비가 내려 옥수수사일리지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옥수수 수확시기가 늦어 사일리지의 품질저하가 우려된다. 밤낮의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이므로 야간에 갑작스런 기온저하에 대비하여 보온관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환절기 송아지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담아두었던 옥수수사일리지를 이용하는 시기이면서 월동용 조사료인 볏짚을 확보하는 시기이다. 볏짚은 비를 맞으면 기호성과 영양

분이 크게 떨어지므로 벼 수확 직후 최대한 비를 맞히지 말고 잘 말려 신속히 수거하고 반드시 비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은 창고 등에 보관한다. 또한 볏짚의 사료 가치 향상을 위하여 암모니아 처리 및 곤포 사일리지를 만들어 보관성 및 사료가치를 높여 부패 및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막고 소의 생산성을 높인다. 동절기를 대비하여 우사, 송아지방, 분만실 등을 수리하고, 여름철에 사용하던 그늘막, 스프링쿨러, 송풍기 등을 철거 또는 점검하여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여 둔다.

사양관리

우수한 후보축 확보는 목장의 성공요인 중 하나이나 현재 사육중인 육성우는 목장에 당장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홀히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우수한 육성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후 4개월령부터 6개월령까지는 일반적으로 중송아지 사료를 구입해서 급여하는 것이 좋고 생후 6개월령 때에는 수송아지와 암송아지를 격리 수용해야 하며 이때 구충제를 사용하여 내부기생충을 제거하도록 한다. 생후 7개월령부터는

영양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로서 훌륭한 젖소를 만드는데 필요한 골격과 근육발달,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생식기관 발달, 유방 용적확대 등을 위한 육성우 사양관리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생후 7개월부터 12개월령의 육성우의 사양관리는 양질의 건초를 급여하거나 방목지에서 자유롭게 양질의 청초를 채식한 경우에는 광물질 사료만 보충하여 주면 된다. 그러나 조사료의 질이 낮은 경우에는 반드시 농후사료(큰송아지 사료)를 보충하여 주어야 한다. 육성우는 월령보다는 체중을 기준으로 하여 첫 증부를 시키는데 증부에 알맞은 체중은 340~360kg이다. 적당한 사양관리에 의하여 생후

14~15개월령에 체중이 350kg 전후로 도달하게끔 육성하여 종부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착유우에 대한 영양소 수준 조절이 필요하다. 즉 여름철 고온기에 높여주었던 영양소 수준을 계절이 맞게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조사료 종류와 농후사료 부분이 변경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서히 변경하여 갑작스런 사료 변경으로 인한 장애를 예방한다. 특히 분만 3주전부터 분만후 3주까지의 전환기 동안에는 사료관리에 유의함으로써 대사성 질병의 예방과 생산성 극대화가 되도록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MUN수치를 관찰하

는 일이다. 우유중 요소농도(MUN)는 분해 및 용해가 가능한 단백질과 사료중 탄수화물의 형태와 양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개체별 MUN값이 적정 범위를 벗어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면 소에 따라 단백질 과잉 또는 부족을 나타내므로 전체적으로 급여하는 사료 단백질의 양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MUN 값이 12~18mg/l이 범위가 정상적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다. MUN값이 18mg/dl 이상이 되면 번식장애가 야기된다고 하므로 단백질이 과잉되지 않도록 해준다.

방역 및 위생관리

밤낮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소 전염성 비기관염(IBR), 소바이러스성설사병(BVD-MD) 등 질병 발생이 잦은 계절이므로 축사내 환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호흡기 백신을 송아지에게 실시한다. 소 전염성 비기관염(IBR)은 접촉 및 오염된 사료, 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며, 주요증상으로는 식욕부진과 유량 감소, 열(39~40℃)이 있고, 호흡곤란과 심한 기침 등의 증상을 나타낸

다. 예방책으로는 병에 걸린 가축은 격리 수용하고 오염된 축사를 소독하고 예방백신을 접종한다.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BVD-MD)은 급성, 만성 전염병으로 식욕 감퇴, 설사, 탈수, 호흡기 증상, 구강염, 발열(39.5~42℃), 유·사산 등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 예방으로는 소 바이러스성 설사-소 전염성비기관염-파라인플루엔자-3 바이러스의 3종 혼합예방약이 있다. 질병은 발생하기전에 예방이 우선이다. 깨끗하고 청결한 축사관리 및 정기적인 소독실시에 최선을 다한다(자료 : 가축위생과 질병-소질병, 농촌진흥청, 2002).

초지 및 사료작물

옥수수사일리지를 개봉하여 이용할 경우, 사일리지는 공기에 닿는 순간부터 2차 발효가 시작되므로 배출면을 수직이 되도록 파 먹이고, 파 먹인 후 비닐로 잘 덮어 공기의 유입을 최소화하여 2차 발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모작으로 재배한 유채나 연맥 등 사료작물은 양질의 조사료로 수확량이 최대가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미 수확된 사일리지, 헤일리지 또는 건조 등은 보관 및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한다. 마지막으로 조사료 생산에 사용된 각종 기계장비는 다음 해에 쓸 수 있도록 정비하여 창고에 보관한다. ☹